

어제와 다른 풍경

임노식: 접힌 시간 Folded Time

합정지구 2017.10.13-10.29

안소연(미술비평가)

형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그림들은 "접힌 시간"의 장면들로 제시되고 있다. 임노식은 이번 전시의 제목을 《접힌 시간》이라 정했고, 대부분 칠흑같이 어두운 풍경이 그 말의 이미지들로 엮인다.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긴 어둠 속 풍경은 수많은 형상들이 중첩돼 어떤 임의의 작은 흠들(porous)을 가진 또 다른 시공을 암시한다. 임노식은 그의 첫 개인전 《안에서 본 풍경》(2016, OCI미술관)에서, 목장을 소재로 울타리 안과 밖의 물리적 경계를 통해 한 개인의 탈중심화된 심리적·사회적 경계에 대한 사유를 시도했었다. 목장 집 아들인 그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집처럼 드나들던 목장에 대한 다중적 경험을 통해 일상의 공간을 인식하는 시각적 위계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그것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안과 밖, 빛과 어둠, 폭력과 방어 등이 분법적 차이가 흐려진 혼돈의 틈새에 대한 사유를 따르고 있었다. 이어서 두 번째 개인전인 《접힌 시간》은, 그가 매일 매일 같은 시간에 오갔던 길 위의 풍경과 그때의 경험을 다룬다.

만약 빛을 섬세하게 조율해 놓지 않는다면 <ground_1>(2017)와 <sky_1>(2017)은 차라리 검은 캔버스거나 혹은 엉겨있는 물감 자국에 가깝다. 하지만 적당한 빛이 캔버스에 파고들었을 때 표면에 드러난 형상은 한 순간 묘한 공간감을 구축한다. 수평으로 마주하고 있는 검은 캔버스의 표면이 사실 내 머리 위로부터 수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접혀 있던 시간적 층위가 드러나면서 그 공간에 주어진 시간성과 그 순간에 대한 몸의 경험을 상상케 한다. 임노식은 도시 공간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차이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시공간적 존재"에 대한 사유에 차츰 몰두해 온 것 같다. 이를테면, 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집과 작업실을 오가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반복되는 도시의 밤 풍경을 봐왔다. 한 가지 종류의 가로수가 즐비하게 늘어선 장막처럼 머리 위 시야를 덮고, 보도블록 위로 차곡차곡 떨어지는 가로수 그림자가 도시의 밤을 더욱 어둡게 했다. 새벽 2시, 작업실에서 나와 습관처럼 같은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그 찰나의 경험 보다는 반복을 통해 길들여진 공간에 대한 인식에 갇혀 위축되고 무감각한 존재가 돼버리기 쉽다. 그의 말대로 그는 늘 "같은 바닥,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을 보며"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그는 문득 "어제와 다른 바닥, 다른 시간, 다른 풍경"을 인식하게 됐고,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시공간 속의 존재와 그때의 구별된 경험을 알아챘다.

<Sky_2>를 보면, 길 위에 서서 올려다 본 가로수 이파리들의 가장자리가 보이고 그것을 경계로 검은 밤하늘이 평평한 배경을 이룬다. 아니, 다시, 어두운 밤하늘이 아득히 먼 공간적 거리감을 상실한 채 캔버스 표면에까지 바짝 다가와 그것을 에워싼 가로수 이파리들과 완전하게 포개어져, 사실상 형상과 배경의 혼한 위계적 클리셰는 지워지고 두 개의 경계가 맞닥뜨려지는 비위계적 시공간을 암시한다. 어쩌면 그가 《안에서 본 풍경》에 이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유독 밤풍경에 몰두했던 것은, 그 시공간이야말로 가장 현실에 가까운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낮과 낮 사이에서, 일련의 혼돈의 힘을 지닌 중간존재(interbeing)로서 사유될 수 있었기 때문일 테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바닥, 같은 풍경을 거닐면서 서서히 새롭게 몸에 각인되는 감

각들을 경험했고, 그것은 마치 접힌 시간들처럼 다중의 시공간이 계속 중첩되다가 불확실한 어느 때에 느닷없이 인식됐다. 임노식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몸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재인식되는 지각의 작은 홈들을 포착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사유는 곧바로 회화에 대한 경험으로 다시 구체화되면서, 대기의 암흑 속에서 형상과 배경이 뒤섞인 밤 풍경은 어느 순간 공간의 질서와 위계가 지워진 회화의 평면 위에서 그 혼돈의 경계를 더욱 실감케 한다.

한편 <wall_1-10>(2017)의 경우, 작게 조각난 열 개의 풍경은 보이지 않는 희미한 단서들로 끈질기게 다시 연결되고 그러다가 어둠의 틈새 속에 또다시 고립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전시의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수많은 절개선을 내포하고 있는 접힌 시간들처럼,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들뢰즈의 리즘적 사유를 통해 인식한 바와 같이) "접기"와 "펼기"의 반복되는 사유를 통해 안과 밖을 절개하여 홈을 널만한 위력의 잠재적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분열적 시공으로서의 밤 풍경에 대한 깊은 사유는, 그에게 회화의 형식 안에서 공간(감)에 대한 탐구와 유희를 지속시킬만한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Sky tower>(2017)은 쓰고 남은 자투리 캔버스 천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같은 크기로 자른 뒤, 매일 보았던 밤하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잔상을 하나씩 그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다. 100여 장의 작은 그림들은, 말 그대로 같은 자리에 켜켜이 쌓여 올라가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주목해 볼만한 것은,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기둥 속에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층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림과 그림 사이, 위와 아래 사이, 수직과 수평 사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특별한 권한조차 누리지 못하는 중간존재로서의 이 불확정적 형상이야말로, 암흑처럼 규정할 수 없는 밤 풍경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

임노식은 일상에서 밤의 풍경에 새롭게 조율되어 가는 몸의 감각을 체감했고, 그 경험에 더욱 몰두하여 일련의 그림처럼 어떤 구체적인 것에 다가가려 했다. <screenshot_1>(2017)과 <screenshot_2>(2017)을 보면, 그가 창문에서 바라다본 밤의 특별한 장면들과 꽤 오랜 시간 마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창문에 문은 뿌연 얼룩, 건너편 건물 지붕을 덮고 있는 낡은 방수천, 건물 외벽 창문의 희미한 불빛들과 혹은 불 꺼진 창문들, 그리고 제 그림자와 뒤영겨 버린 어둠 속의 나무들... 창문으로 바라본 이 각각의 광경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에 서로 뒤섞여 다중의 공간을 함축하는 접힌 시간으로서의 밤 풍경을 확인시켜준다. 임노식은 바로 그 시공간에 대한 지각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일상의 풍경에 저항하는, 바로 어제와 다른 풍경을 구축하려 한다. 접힌 시간처럼 혼돈을 품고 있는 이 밤의 풍경들에서는, 현실의 시공간이 더 이상 현실의 그것이 아닌 존재로 다르게 지각된다.

Scenery different from yesterday

Nosik Lim: *Folded Time* Hapjungjigu 2017.10.13.-10.29

Soyeon Ahn
Art Critic

The paintings which do not easily reveal their figures are presented as the scenes of "folded time". Nosik Lim decided *Folded Time* a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nd the majority of pitch-dark scenes are linked with the image of this term. The scenery in the darkness between a dusk and dawn are layered with numerous figures, so it implies different spaces and time having small arbitrary porous.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View from the Inside* (2016, OCI Museum), he tried to mediate an individual's de-centred psychological and social border, through a physical border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fence of a farm. The artist who is the son of a farm and came and out from the farm in his childhood, asks questions on the visual hierarchy of recognising the space of daily life, based on his multiple experiences about the farm. It follows thoughts about the gap of chaos that dichotomous difference has blurred, such as inside and outside, light and darkness, violence and defence. The following second solo exhibition *Folded Time* deals with the views on the roads which he came and go every day and his experience at that time.

If the light is not tuned subtly, *ground_1*(2017) and *sky_1*(2017) are rather close to the black canvas or smudge of congealed paint. When the proper amount of light penetrates into the canvas, however, the figures appeared on the surface build a peculiar sense of space for a flash. When it is recognised the fact the surface of canvas connotes the space which extends endlessly above my head, folded layers of time are revealed and it makes to imagine the temporality given to that space and the experience of a body of that moment. Through his daily experience repeated within the city space, Lim seems to perceive the invisible differences created by the repetition and gradually focuses on "spatiotemporal being".

For instance, he has been seeing undoubtedly repeated evening sceneries while coming and going between the studio and house each day around the same time. One type of roadside trees stood closely together and blocked one's view like a curtain, and the shadow of trees falling neatly on the precast pavers darken the night of city. When getting out from the studio at 2 a.m. and walking while seeing the same view habitually, it is easy to become an insensitive existence by locked in the perception of space that was accustomed by repetition, not by instant experience. As he puts it, he walked the path while "watching the same floor, the same time, and the same panorama". While walking the same road again in one

day, he suddenly recognised "the floor, time, and view that are different from yesterday", and noticed the being in the specific time and space and distinctive circumstance through repetitive experience.

In *sky_2*, the edge of the leaves of roadside trees is seen above the road, and black night sky forms the flat background along the rim of leaves. No, again, dark night sky comes up closely to the surface of canvas while losing the sense of distance, and be piled up perfectly with the leaves of roadside trees: the typical cliché of shape and background is virtually vanished, and it infers non-hierarchical time and space that the edge of shape and background encounter with. Perhaps, the reason he buried himself particularly in the view of night in this exhibition followed by *View from the Inside*, is these time and space can be recognised as an inter-being that has a series of power of chaos while locating between today and tomorrow which are mostly close to the reality, daytime and daytime.

He experienced new senses are carved into his body by walking for every night,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road, and in the same scenery. These multiple time and space were continuously layered like as the folded times and suddenly recognised to him at some uncertain moment. Lim tries to capture his physical experience and small gaps of perception newly understood through the experience. Thoughts about this experience are immediately re-materialised as the experience of painting. At some point, on the surface of painting that the order and hierarchy of space are demolished, the night scene that shape and background are jumbled in the darkness of air makes to realise the edge of the chaos.

Meanwhile, in case of *wall_1-10(2017)*, ten sceneries divided into small pieces are persistently reconnected with dim clues and isolated in the cracks of darkness again. As the title of exhibition suggests, it is not easily unveiled like folded times that connote a lot of cutting lines, (already perceived through Deleuze's idea of rhizome), but it implies latent space with power to create a space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through repeated thoughts of "folding" and "unfolding". Deep thinking about the night scene as fragmented space and time provides him strong motivation to retain his investigation and play about the (sense of) space within the form of painting.

sky tower(2017) is the work with collected leftover pieces of canvas cut into the same size; he recalls the view of night sky every day he saw, draws the afterimages and piles them one by one. About 100 pieces of these small paintings compose multi-layered structure that is piled up at the same place. The remarkable thing is the middle layers are the only part able to perceive with an eye from the transparent pillar which start and endpoints are hardly seen.

However this uncertain figure as inter-being, which does not have any special authority between painting and painting, up and down,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starts and ends, represents the perception of night scene that is hard to be defined like darkness.

Nosik Lim feels the sense of body newly adjusted in the night scenery of daily life, and more concentrates on the experience to approach something specific like a series of paintings. As can be seen in *screenshot_1(2017)* and *screenshot_2(2017)*, it is possible to guess he has faced with distinctive scenes of the night from window 2

for quite a long time. Cloudy smears on the windows, the faded water-repellent cloths covering the roofs of opposite buildings, dim lights from the buildings outside, faded windows, and the trees in the darkness tangled up with their shadows... Each of these scenes seen from the window verifies the night scene as folded times which are regularly mingled and connote multiple spaces. Through the experience of perception and thinking about these time and space, Lim aims to construct the scenery different from yesterday which resists to everyday scenes. In these scenes implying chaos like as folded times, time and space are perceived differently than that of reality.